

4차원적 정치 엘리트-체제 유형법: 이념형간의 대응과 사례*

주 장 환*

•요 약•

전 세계 200여개 국가의 정치 엘리트와 체제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학술적 대답이다. 4차원적 정치 엘리트-체제 유형법을 제시함을 통해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세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권력의 집중도, 다원화, 제도화, 안정성 등 4개의 독립된 차원의 조합으로 16개의 세부 유형을 가진 정치 체제 유형법을 설계 및 제출한다. 다음으로 이 유형법과 기존의 4차원적 정치 엘리트 유형법을 접합한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16개 유형을 친화성을 기반으로 대응시킨다. 마지막으로 이 4차원적 엘리트-체제 유형법의 각 세부 유형의 대표적 사례를 적시하여 그 적실성을 일정하게 검증한다.

2장에서는 이 유형법 설계의 접근과 핵심 논리를 설명하고 4차원적 체제 유형법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이와 4차원적 엘리트 유형법을 대응시키고, 각 유형의 대표적인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정리, 함의 도출 그리고 그 한계에 기반한 향후 과제를 정식화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 새로운 4차원적 유형법을 통해 전 세계 정치 엘리트와 체제들의 다양한 현실적 변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적 도구를 제출함으로써 관련 분야 논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정치 엘리트, 정치 체제, 4차원적 정치 엘리트-체제 유형법, 권력의 집중도, 다원화, 제도화, 안정성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C2A01090085).

** 한신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겸 유라시아 연구소 소장

I. 서론

현재 전 세계에는 약 200여개의 국가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 특히 비슷한 역사적 배경과 규모 그리고 지리적 조건을 가진 국가들이 왜 상이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접근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해당 국가들의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의 차이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입각하고 있다.¹⁾ 즉 이 연구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특히 20세기 중반 구체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존재하는 ‘국가’라는 동일한 개념적 실체의 다양한 ‘변이(variation)’를 규명하고 설명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과정은 사회 변화의 핵심 추동력을 행위자 중심으로 보는 미시적 접근과 기실 동일시된다. 즉 이 접근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변화는 특정 유형의 엘리트가 국가 활동의 구조 즉 정치 체제와 상호작용하고, 대내외 환경의 작용에 반응하는 정책이라는 행위의 결과인 것이다.²⁾ 그렇다면 이 과정은 어떤 단계와 방법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된, 각 차원별 범주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논리 및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이들 유형들을 대응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³⁾ 보다 구체적으로 이 방법의 첫 단계는 구체적으로 각 차원과 범주별로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계한다. 즉 특정 주제에 대한 유형법(typology)을 설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차원과 범주별로 구분된 유형들을 상호 대응시킨다. 즉 서로 다른 유형법들간의 대응을 의미한다. 부연하자면 이는 ‘이념형(ideal type)간의 ‘대응(correspondence)’ 작업을 진행하는 것과 같다.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대응된 이념형간의 조합의 적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귀납 및 경험적으로 대응시킨다. 즉

1) 이 관점의 문제의식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Burton, M. and Higley, J. “The Study of Political Transform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vol. 11, no. 2(2001), pp.181-182을 참조 바람.

2) 이 미시적 접근에 대비되는 관점은 거시적 접근이며, 기실 이 양대 접근법은 행위자와 구조의 선차성에 대한 차이이지,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이 사회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구분과 각 접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이기홍, “행위, 행위주체 그리고 구조”, 『한국사회학』, 제28집, 한국사회학회, 1994, pp.163-194를 참조 바람.

3) 이 방법은 기실 정치 엘리트 연구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도 함. 대표적으로는 Putnam, R. D.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Elite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76; Ruostetsaari, I. “Opening the Inner Circle of Power Circulation among the Finnish Elites in the Context of Major Societal Changes 1991~2011,” *Comparative Sociology*, vol. 12, no. 2(2013), pp. 255-288 등을 들 수 있음.

이념형에다가 ‘실재형(real type)’을 맞대응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른바 ‘행위자-구조-정책’의 세 범주간의 유형간 대응 관계가 존재하는 하나의 분석적 모델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행위자의 변화가 구조의 변형을 초래하고, 이 두 요인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행위(정책)를 산출한다는 사회 변화에 대한 미시적 접근의 기본적인 분석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 모델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인 국가의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행위자는 ‘정치 엘리트’를 의미한다. 이들은 정치 및 정책 영역에서 각 조직 및 조직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유형 및 무형의 역량을 소유한 소규모의 상대적으로 응집력과 안정성을 갖춘 그룹 혹은 개인(들), 혹은 국가 공공 정책 결정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인사(들), 특정 정책의 추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인사(들)를 가리킨다.⁴⁾ 또 여기에서 구조는 ‘정치 체제(political regime)’를 의미한다. 이것은 각 국가(정부)의 정책 결정 권력이 조직, 집행 그리고 사회에 전달되는 기본적인 방식을 의미한다.⁵⁾ 한편 정책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달성을 위해 기획, 고안 그리고 집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모델에서는 상술한 미시적 접근의 기본 논리에 따라, 행위자의 ‘선차성(先次性)’을 전제하고 있다. 즉 행위자가 구조보다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석에 있어서 그 선차성에 주목한다는 의미이다.⁶⁾ 또 이 각 각의 범주 간에 대응되는 세부 유형들은 논리적인 ‘친화성(infinity)’을 가진다고 전제한다. 이 친화성은 상관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종의 매우 낮은 단계의 인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리적 관계에 대한 제고와 검증은 실재형 즉 사례들이 얼마나 이들 이념형의 대응 조합들과 정합적으로 일치하고, 객관적으로 그 특징들을 반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전체 모델에 대한 평가는 모든 국가들의 변이를 이 모델이 전부 포함할 수 있는가 여부 역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즉 200여개 국가들의 사례가 예외 없이 이 모델이 모두 포괄할 수

4) Ruostetsaari, I. "Social Upheaval and Transformation of Elite Structures: The Case of Finland," *Political Studies*, vol. 54, no. 1 (2006), pp.23-24.

5)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체제는 ‘정권’의 개념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정권Dogan, M. and Higley, J. eds., *Elites, Crises, and the Origins of Regimes*, Lanham: Ro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8, p.20.

6) 행위자와 구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대적 중요성이나 비중의 차이가 아니라 행위자가 구조에 선행한다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분석적 이원론(analytical dualism)’을 채택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이 관점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Higley, J. and Lengyel, G. eds., *Elites after State Socialism: Theories and Analysis*, Lanham, Boulder, New Y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2000; Best, H. and Higley, J., eds., *Political Elites in the Transatlantic Crisis*, London: Palgrave, 2014 등을 들 수 있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술했다시피, 이 엘리트-체제-정책 모델을 수립하는 전체 과정에서의 하나의 부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미 기존 연구에서 제출된 4차원적 정치 엘리트 유형법에 대응되는 정치 체제 유형법을 설계 및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런 측면에서 상기한 과정에서 4차원적 엘리트-체제 유형법을 제시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각각의 정치 엘리트-체제 대응 세부 유형에 대표적인 사례를 적시함으로써, 이 유형법의 적실성을 검증할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4차원적 정치 체제 유형법을 설계하여, 동 차원의 정치 엘리트 유형법과 대응시키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이 유형법과 그 대응 조합의 적실성을 검증한다. 그 결과는 논리적으로 16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는 정치 체제 유형법이다. 향후 연구 과제인 그 다음 단계는 이 엘리트-체제 유형법과 정책 유형법을 접합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현재의 국가들의 다양한 변이를 기존의 이론적인 틀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진 현재의 상황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세계의 국가들의 변이는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혼합체제(hybrid regime)’라는 개념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즉 기존의 정치 체제에 대한 특정 분석틀과 유형법으로는 그 포괄이 불가능한 특히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후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중 어디에도 분명히 속하지 않는 국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⁷⁾ 이 개념의 등장 그리고 이미 이 혼합체제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체제의 유형이라는 주장 등은 기존의 체제 유형법 자체가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강하게 방증한다.⁸⁾ 물론 이 추세 하에서 체제 관련 연구가 유형법보다는 지수화(indexing)를 통한 체제 특성을 분석하는 경향으로 발전하는 기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학술이나 실천적으로 그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임계점 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회과학현상에서 유형보다는 특성의 비율로써 체제를 구분해야하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체제를 지수화하는 작업들의 실효성이 여전히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특정 체제 즉 민주주의를 하나의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이념 중심적 편향을 노정하는 등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7) Carothers, T. 2002.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vol. 13, no. 1(2002), pp.5-21; Diamond, L. 2002. "Thinking about Hybrid Regimes," *Journal of Democracy*, vol. 13, no. 2 (2002), pp.24-25.

8) 혼합체제가 전 세계 국가 체제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라는 주장은 Howard, M. and Roessler, P., "Liberalizing Electoral Outcomes in Competitive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no. 2(2006), pp.365-366 등을 참조바람.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실의 복잡다단함으로 인해 기존 유형법의 한계는 지수화 등 다른 방법에 의해 대체되기보다 이 유형법적 접근의 진화를 통해서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 유형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보다 중층화 및 다양화되어가는 정치 체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법의 고안 및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 대체적인 방향은, 마치 현미경의 배율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보다 세밀한 관찰의 가능성을 높였듯이, 차원의 증가를 통한 보다 세분화된 유형법의 개발이어야 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여기에서 ‘차원(dimension)’은 흡사 현미경에 있어서는 배율(magnification)과 같다. 따라서 만약 정치 엘리트와 마찬가지로 체제 역시도 보다 ‘고차원(high dimension)’으로 구성된 이념형인 유형법으로 실재형인 체제를 구분할 경우, 신생 사물을 발견할 가능성도 또 이에 기반하여 분석과 설명력도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소위 전 세계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의 쇠퇴’가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 뿐만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학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한다면, 기존 유형법으로는 그 구분과 분석이 불가능한 체제 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⁹⁾ 이 역시 보다 세분화된 정치 체제 유형법이 필요한 현실적인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격적인 논의로써 제2장에서는 4차원적 정치 체제 유형법을 고안하고 설계한다. 이 4차원적 정치 체제 유형법은 형식적으로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4가지 차원의 범주에 대한 설정과 16개 세부유형을 가진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설계되고 제시된 4차원적 정치 체제 유형법을 기존의 동 차원 즉 4차원적 정치 엘리트 유형법과의 접합을 진행한다. 즉 4차원적 정치 엘리트-체제 유형법이 제출된다. 동시에 이에 대한 적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각각의 세부 유형에 대응시킨다. 본 연구에 대한 정리, 함의와 한계 그리고 이에 기반한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한 정식화 등의 내용은 결론에 담는다.

II. 4차원적 정치 체제 유형법

이 장에서는 주되게 4차원적 정치 체제 유형법을 고안 및 설계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이 유형법은 다음과 같은 전제와 논리 구조에 의해 설계된다. 첫째, 마치 세포의 ‘유전자(gene)’와 ‘디옥시리보핵산(DNA: Deoxyribo nucleic acid)’의 관계와 같이, 특정

9) 이와 같은 견해의 최신 연구는 등을 서경교, “정치변동과 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II: 논의와 평가”,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2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18, pp.331-354 등을 들 수 있음.

정치 엘리트 유형과 체제 유형은 친화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본 연구에서 설계되는 4차원적 정치 체제 유형법은 동차원의 정치 엘리트 유형법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의미이다. 둘째, 따라서 4차원적 정치 체제 유형법은, 4차원적 엘리트 유형법과 마찬가지로, 4차원의 범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총 16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성된다. 즉 200여개의 국가의 정치 체제는 16개 유형 중 특정한 한 유형에 예외 없이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각 세부유형은 기본적으로 4차원적 정치 엘리트 유형법과 같이 기호의 배열 형태이다.¹⁰⁾ 물론 세부 유형의 명칭을 전체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 등과 같은 기존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처럼 분명하게 대응시키면 보다 유형법이 직관적으로 명증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1차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엘리트-체제 유형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기존 개념들이 직접적으로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이는 세부 유형에 대한 기호화를 넘어선 개념화는 향후 연구의 과제로 설정한다. 물론 세부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학계에서 정치 체제에 대한 유형에 관한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연원은 기원전 4세기 시기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국가의 정치 체제에 관한 논의는 20세기 초반부터 진행되었다. 특히 엘리트 이론의 주요 학자들은 대부분 체제의 문제와 연동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각자의 주장을 폈다. 이것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옹호 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유사한 경향이다.¹¹⁾ 특히 이론에 기반한 엘리트 이론가들은 엘리트와 체제 유형을 사실상 동일시하는 입장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즉 특정 엘리트 유형과 체제 유형을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대부분의 2차원적 유형법을 채택한 ‘정치적 태도와 응집력에 기반한 유형법(Elite typology based on political attitudes and cohesion)’, ‘통합과 이익 대표성에 기반한 엘리트 유형법(Elite typology based on integration and interest representation)’, ‘분화와 통합의 정도에 기반한 엘리트 유형법(Elite typology based on the extent of differentiation and unity)’, ‘응집력과 충원과정에서의 개방성에 기반한 엘리트 유형법(Elite typology based on coherence and openness of recruitment)’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¹²⁾

10) 4차원적 엘리트 유형법의 세부 유형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장환, “정치 엘리트에 대한 4차원적 유형학: 논리와 사례”, 『대한정치학회보』, 제31집 3호, 대한정치학회, 2023a, pp.162-163을 참조 바람.

11) 대표적인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옹호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Schumpeter, Mills, Sartori 등을, 또 옹호하지 않는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Pareto, Mosca, Michels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Korosenyi, A. “Political Elites and Democracy,” in Best, H. and Higley, J.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Political Elites*, London: Macmillan Publisher Ltd., 2018, pp.41-44를 참조 바람.

12) 각각의 유형법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Hoffmann-Lange, U. “Theory-Based Typologies of Political

그러나 상술한 대부분의 2차원적 엘리트 유형법의 가장 큰 한계는 ‘친화성’에 기반한 대응을 시도했다할지라도 정치 체제와 관련된 독자적인 범주 설정을 통한 유형법을 설계하지 않고, 사실상 엘리트 유형에 부산물 내지 종속물로서 체제 유형을 자리매김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향의 가장 큰 문제는, 비록 결과는 유사하다할지라도 행위자와 구조간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양자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을 실제 분석과정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분석의 주제에 따라 행위자와 구조는 독립과 종속변수의 지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행위자는 독립변수, 구조는 종속변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논리적인 선차성의 개념에 기반하여 정치 엘리트와 독자적으로 고안된 체제 유형법을 설계하고, 그 이후에 정치 엘리트 유형과의 대응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4차원적 정치 체제 유형법에서 매우 중요한 각 차원에서 대해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 및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모두 4개의 차원에서 체제 유형을 구분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린즈(Juan J. Linz)와 스테판(Alfred Stepan)의 체제 구분의 4가지 범주를, 구체적 정치 체제 구분의 범주와 관련해서는 달(Robert A. Dahl)과 윈터스(Jeffrey A. Winters) 등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변용하여 활용한다.¹³⁾ 우선 이 유형법은 4차원으로 구성 된다. 이는 실용적으로 전제한 행위자 부분인 정치 엘리트 유형법이 4차원인 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 특징은 향후 조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더욱 고차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유형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사례는 리즈와 스테판이 제시한 4차원적 정치 체제 유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들은 다원주의, 이데올로기, 동원(mobilization), 리더십 등의 차원에서 범주를 구성하고, 범주내의 세부 특성을 근거로 정치 체제를 구분했다.¹⁴⁾ 그러나 이 유형법은 각 범주에 대한 측정 기준과 이들의 조합인 체제 유형의 논리적 관계가 엄밀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형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연역주의적 논리에는 다소 불일치하는 귀납적인 접근 논리를 가진

Elites,” in Best, H. and Higley, J.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Political Elites*, London: Macmillan Publisher Ltd., 2018, pp.51-57을 참조 바람.

13) 이들 각각의 견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Dahl, R. A., *Poli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1; Linz, J. J. and Stepan, A.,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Winters, J. A., *Oligarc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등임.

14) Linz and Stepan, *Ibid.*, pp.43-56.

것으로 평가된다. 즉 특정 실재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체제 유형과 그 범주를 설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재형 즉 대표적인 사례를 선형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순 연역적으로 접근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각 범주에 대한 설정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4차원의 범주를 2개의 중분류로 구분한다. 하나는 ‘정치 체제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Winters의 체제 유형법에서 참고했다. 주지하다시피 이 유형법은 과두제를 전체 정치 체제를 포괄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개념으로 설정하고, 이 과두제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¹⁵⁾ 특히 과두제의 다양한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범주를 제외하고, 정치 본질을 중심을 하나의 범주로 설정한 것은 고유의 특성과 그 발현의 구체적 조건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범주 설정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 중분류의 기본인 정치의 본질과 관련된 범주으로써 본 연구는 ‘권력 집중성’과 ‘다원화 정도’를 치환하여 설정한다. 전자는 일종의 정치적 ‘극(pole)’의 배치로써 이해가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일극에서 다극까지 그 정도가 다르게 분포될 수 있다. 또 일종의 권력의 배열의 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범주의 측정은 권력의 쏠림 현상의 정도를 중심으로 그 집중성을 가늠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후자는 권력 주체들의 정치 참여의 배열 상태를 가리키며, 이들 간 경쟁과 협력의 물질적 초기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전자는 Dahl의 유형법에서의 범주 중 공적인 경쟁을 의미하는 자유화(Liberalization)에, 후자는 참여를 의미하는 포괄성(Inclusiveness)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다.¹⁶⁾ 따라서 이 범주에 대한 측정은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다양함 정도를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특정 정치 체제의 다원화 정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권력 배열의 ‘결과’와 정치 참여 배열의 ‘상태’간 상호관계는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즉 정치 참여의 다원화 정도가 높다고 해서 곧바로 논리 및 실증적으로 다극화된 권력 배열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 양자 간에는 어떤 방향성으로의 경향성을 공유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의 중분류는 정치 체제의 ‘구체적인 작동의 양태’와 관련된 것이다. 즉 정치의 본질과는 논리적으로 무관하게, 실제 작동의 측면에서의 그 변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본 연구는 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범주는 제도의 측면과 그것의 실제 작동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측면에서의 범주 설정과 관련해서는 정치 엘리트 유형법

15) Wintets, op. cit., pp.6-32.

16) Dahl, op. cit., pp.3-12.

중 ‘순환(circulation)’의 방식과 범위와 관련된 부분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¹⁷⁾ 즉 이 측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통합과 분화를 강조한 유형법에다가 이 순환의 측면을 연결시킴으로써 집단적 엘리트 유형의 실제 작동과 관련된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유형법의 고도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유형법은 2차원적이라서 순환의 방식과 통합 그리고 순환의 범위와 분화라는 논리 및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범주들을 결합시킴으로써 발생한 오류들을 시정한 4차원적 유형법으로 발전되면서, 다양한 현실적인 엘리트 유형의 변이를 포착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¹⁸⁾ 이런 맥락에서, 이 제도와 그 작동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제도화’와 ‘안정성’을 구체적인 범주로 설정한다. 전자는 제도화에서 구체적으로 현대 정치 제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의제와 관련된 측면을 가리키며, 대의제의 완성도를 그 측정 기준으로 설정한다.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와 사실상 동일시되는 대의제는 제도 자체의 존재 유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의 여러 변이들도 존재한다. 한편 후자는 특정 제도의 성격과 관련 없이, 그 지속성 정도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특정 제도의 변화와 정권의 붕괴와 급변사태 등의 발생 유무와 빈번함 등을 중심으로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겠다. 또 대의제를 중심으로 제도화를 본 이유는 대의제가 현대 정치의 제도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례이기도 하며, 역으로 가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전 세계 국가에 대해 보편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안정성 역시 그 자체로서 가장 간명하게 보편적으로 전 세계 국가의 정치 체제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특정 정치 체제의 작동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이 네 차원의 각 범주들은 상호 독립적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원화 정도가 높은 체제라고 할지라도, 권력 집중성이 높을 수 있으며, 대의제의 완성도가 높은 즉 제도화 수준이 높은 체제라 할지라도 불안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4차원적 정치 체제 유형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에 따르면, 위의 4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정치 체제 유형을 구분하면 모두 16개의 세부 유형이 도출된다. 물론 이 16개의 이념형이 200여개 국가를 모두 포괄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실증 연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정치 엘리트 유형과의 접합을 진행하고,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대응시킴으로써 4차원적 엘리트-체제 유형법을 기본적으로 완성해 나간다.

17) Higley and Lengyel, op. cit., pp.4-12.

18) 최근의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장환,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국지역연구』, 제31집 3호, 중국지역학회, 2023b, pp.223-246을 들 수 있음.

〈표 1〉 권력 집중성, 다원화, 제도화, 안정성에 따른 4차원적 정치 체제 유형법의 특징과 종류

권력 집중성	다원화	제도화	안정성	세부 유형
정치의 본질		제도의 특성과 작동		
강(S)	높음(H)	대의제(R)	높음(H)	S-H-R-H
			낮음(L)	S-H-R-L
		비대의제(U)	높음(H)	S-H-U-H
			낮음(L)	S-H-U-L
	낮음(L)	대의제(R)	높음(H)	S-L-R-H
			낮음(L)	S-L-R-L
		비대의제(U)	높음(H)	S-L-U-H
			낮음(L)	S-L-U-L
약(W)	높음(H)	대의제(R)	높음(H)	W-H-R-H
			낮음(L)	W-H-R-L
		비대의제(U)	높음(H)	W-H-U-H
			낮음(L)	W-H-U-L
	낮음(L)	대의제(R)	높음(H)	W-L-R-H
			낮음(L)	W-L-R-L
		비대의제(U)	높음(H)	W-L-U-H
			낮음(L)	W-L-U-L

Ⅲ. 16개 정치 엘리트-체제 유형: 대응과 대표 사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제3장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2장에서 제시한 4차원적 정치 체제 유형법과 기존의 4차원적 정치 엘리트 유형법을 논리적인 친화성을 근거로 하여 각각 16개의 세부 유형들을 접합시키는 것이다.¹⁹⁾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4차원적 정치 엘리트-체제 유형법을 완성한다. 둘째는 각각의 세부적인 정치 체제 유형의 대표적인 실재형을 대응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이 유형법에 대한 이해 정도의 제고뿐만 아니라 검증과 향후 보완 의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해 정도 제고를

19)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장환, op. cit., 2023a를 참조하고, 이 16개 세부 정치 엘리트 유형법을 활용한 최신 연구는 주장환, “경제 정책 변화와 엘리트 변동: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를 사례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 pp.161-189 등을 들 수 있음.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개념들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높인다. 아래에서는 각 세부 유형간의 집합을 진행함과 동시에 대표적인 사례인 실제형을 적시한다. 이 결과는 <표 2>를 통해 정리된다.

S-H-R-H형. 강한 권력 집중성, 높은 다원화 정도, 대의제를 채택하며 그 운용이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가리킨다. 이 체제는 높은 통합 수준, 넓은 분화 정도, 좁은 순환 범위 그리고 점진적인 순환 방식 등의 특징을 가진 엘리트 유형(S-W-N-G)과 논리적으로 대응된다. 이 체제는 권력 구조 차원에서 일극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다양한 색채의 정치 세력들이 체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완전 공개 경쟁의 형태는 아니나 정기적인 선거에 의해 정치인들이 선출되는 시스템 즉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 시스템과 이를 관장하는 질서와 법률 등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는 유형이다. 대표적인 실제형은 이슬람 공화국을 표방하는 국가들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신성국가이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이슬람 공화국 체제 즉 1979년 혁명 이후의 이란을 들 수 있다. 이란은 종교지도자가 최고지도자를 겸하고, 강력한 종교 색채를 가지고 있고 또 비록 정당을 허용하지 않지만, 사실상 공식적인 파벌의 형태로 비교적 다양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일반 국민들이 선출하는 대의제가 상당한 수준의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다.²⁰⁾

‘S-H-R-L’형. 이 유형은 상술한 그것과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지만, 안정성 차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체제이다. 즉 강한 권력 집중성, 높은 다원화 정도, 대의제가 운용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그 운용의 안정성이 상당히 낮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응하는 엘리트 유형은 ‘S-W-W-S’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높은 통합 수준을 가지고, 상당 수준의 분화 정도와 넓은 규모의 순환의 범위를 가지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순환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 엘리트 유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란과 같은 이슬람공화국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지만 체제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1956년 이후 파키스탄을 들 수 있다. 파키스탄은 1956년 헌법 제정을 통해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하고, 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정치 제도를 건설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임기를 마친 총리가 한 번도 없으며, 2022년에는 최초로 총리가 불신임 투표로 물러나는 등 체제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취약한 안정성의 배후에는 이미 역대 5번의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자리 잡고 있고, 현재까지 여전히 군

20) 현재 이란 정치 체제의 특성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유달승, “이란 정치체제와 권력투쟁: 이란 정치 지형의 향방은?”, 『다양성+Asia』, 제1권 3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18, pp.1-6; 인남식, “2020년 이란 총선의 결과 및 함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3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pp.1-21 등을 참조 바람.

부의 헌정 질서 중단 시도에 대한 위협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목할 점은 쿠데타 이후에도 이미 사회경제, 지리와 인종, 이념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 세력의 조합인 정당들의 활동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²¹⁾ 상술한 두 유형은 초기 체제 유형의 분류에 따르면 전자는 ‘안정적 술탄제’ 그리고 ‘후자는 불안정한 술탄제’라고 이해될 수 있다.²²⁾

‘S-H-U-L’형. 이 유형은 권력 집중도는 상당히 강한 수준이고, 다원화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으며, 제도적으로는 비대의제에 속하면서 그 안정성은 낮은 체제이다. 한편 이 체제에는 통합 정도는 강하나 분화와 순환 범위의 폭은 넓으며, 순환의 방식은 급진적인 엘리트 유형(S-W-N-S)이 대응된다. 이 체제 유형의 대표적인 실재형은 대부분 강력한 1인 독재 체제의 체제 내 붕괴와 해체 이후 상황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 사망 이후 대략 1982년 덩샤오핑(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반(反) 문혁과 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전까지의 중국 체제가 비교적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마오쩌둥이라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1인 지도자에 의해 유지되던 체제가 그의 사망 이후 그 후계지위를 두고 친(親)과 반 문혁과 등복수의 그룹이 사실상 무력을 동반한 경쟁을 벌였고, 그 이후에는 마치 토너먼트 게임처럼 또 반 문혁파내에서도 개혁파 보수파 등이 경쟁을 벌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당-국가 체제는 유지되는 조건하에서의 기존 정치 엘리트간의 보다 선명해진 권력 투쟁이 진행되었다. 물론 이로 인한 체제의 안정성은 상당정도 하락했다.²³⁾

‘S-H-U-H’형. 한편 이 상술한 유형과 안정성 측면에서만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체제가 있다. 즉 권력 집중도는 높으나, 다원화 정도는 낮고, 제도화의 차원에서는 비대의제에 속하며, 안정성은 높은 체제이다. 각 차원의 범주들이 다소 엇갈리는 배치를 가진 이 유형은 높은 통합 수준과 상대적으로 좁은 분화 정도 그리고 좁은 순환의 범위와 점진적인 순환의 방식을 특징으로 가진 엘리트 유형(S-N-N-G)과 논리적으로 친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상술한 유형의 체제에 비해 이 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

21) 이런 파키스탄 정치 체제의 특징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Ejaz Hussain, “파키스탄군의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민간-군 관계”, 『EMERiCs 인터뷰』, 11월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pp.1-9; 백중훈, 남유진, “파키스탄 정권교체의 배경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5 No. 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pp.1-12 등을 참조 바람.

22) 정치 체제 유형법에서 ‘술탄제’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Linz와 Stepan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 개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Linz and Stepan, op. cit., pp.51-52를 참조 바람.

23) 이 시기의 중국 정치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Shih, V., *Coalitions of the Weak: Elite Politics in China from Mao's Stratagem to the Rise of Xi*,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pp.109-131을 참조 바람.

라고 할 수 있다. 이 체제의 실재형은 1980년 대의 덩샤오핑이 사실상 집권한 중국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시기 중국은 개혁·개방이라는 노선에 대한 의견 일치는 존재했지만, 직전 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파벌간의 경쟁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노선투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점차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가 정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덩샤오핑이라는 개인의 영향력이 공식 지위와는 상관없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권력 집중도 차원에서 이른바 ‘과두제’의 정도로 질적 변화를 나타냈다고 볼 수는 없겠다.²⁴⁾ 한편 상술한 두 유형은 전자는 불안정한 후 전체주의, 후자는 안정된 후 전체주의라고 기존의 개념을 활용하여 명명할 수도 있다.²⁵⁾

‘S-L-U-H’형. 이 유형은 특정 이데올로기의 독점적 지위 유지와 개인 우상화를 포함한 강력한 사상적 통제를 통한 매우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조치를 통해 권력 집중도가 높고, 다른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가진 세력들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그 다원성 정도가 매우 낮으며, 제도적으로 비대의제를 채택하면서도 그 안정성을 상당히 높은 체제를 가리킨다. 이와 대응되는 엘리트 유형은 강한 통합 정도와 낮은 분화 수준 그리고 좁은 순환의 범위와 급진적인 순환의 방식을 그 특징으로 하는 ‘S-N-N-S’형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0세기의 사회주의 공화국 중 북한의 김일성 체제(1948~1994),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세스쿠(Nicolae Ceaușescu) 체제(1965~1989) 등을 들 수 있다.²⁶⁾ 물론 이 두 체제의 결말은 극명하게 대비되지만, 그 과정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S-L-U-L’형. 이 유형은 역사적으로 상기 체제의 후반기에 등장할 가능성이 경향적으로 높다. 특히 외부가 아닌 핵심 정책 결정 그룹 내부간의 권력 다툼 등이 외부로 표출되었을 경우에 해당된다. 여전히 상술한 유형보다는 그 정도가 다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강한 권력 집중도와 낮은 다양성 그리고 비 대의제적 제도화의 특성을 가지는 부분은 상술한 유형과 유사하지만, 유독 안정성이 급격하게 낮아진 유형이다. 또 이 체제는 강한 통합 정도와 좁은 분화 수준 그리고 넓은 순환의 범위와 급진적인 순환의 방식을 그 특징으로 하는 엘리트 유형(S-N-W-S)과 대응된다. 대표적인 예는 1966년에서 1976년까지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를 들 수 있다. 특히 1971년 미수에 그친 당시 2인자 린바오

24) 이 시기의 중국 정치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Ibid., 132-152를 참조 바람.

25) 이 ‘후 전체주의’의 개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Linz and Stepan, op. cit., pp.42-43을 참조 바람.

26) 특히 김일성 체제의 이런 특성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김우영, 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1권 3호,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18, pp.43-83을 참조 바람.

(林彪)의 쿠데타 시도는 이 유형에 매우 적절한 사례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²⁷⁾ 한편 이 상술한 두 유형은 전자는 안정적 전체주의, 후자는 불안정한 전체주의 유형으로도 명명될 수 있다.

‘S-L-R-L’형. 이 유형의 체제는 권력 집중도와 다양성의 정도 그리고 안정성은 상술한 유형과 유사하게 낮다. 그러나 대의제를 제도화의 기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 또 이에 대응하는 엘리트 유형은 통합 정도는 이전 시기에 비해 다소 약하면서 분화 정도는 좁으며, 반면 순환의 범위는 넓어졌으나 그 방식은 급진적인 특징을 가진 ‘W-N-W-S’형이다. 이 유형의 체제는 대부분 대의제의 완성도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사례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의 28년간 장기 집권한 누르술탄 애비술르 나자르바예프(Nursultan Abishuly Nazarbayev) 이후 2019년 집권한 현 카심조마르트 케멜레비치 토가예프(Kassym-Jomart Kemeluly Tokayev) 체제를 들 수 있다. 즉 전임자의 장기집권 이후 등장한 이 최고 지도자는 2022년 시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임자와의 전략적 동거관계를 정리하고 홀로서기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체제라고 평가된다.²⁸⁾

‘S-L-R-H’형. 이 유형의 체제는 권력 집중도는 높고, 다양성의 정도는 낮으며,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안정성은 높은 것을 가리킨다. 또 강한 통합 정도와 좁은 분화 정도 그리고 넓은 순환의 범위와 점진적인 순환의 방식을 가진 엘리트 유형(S-N-W-G)이 이 체제와 논리적으로 대응된다. 이 유형의 체제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공정성에 대해 잦은 시비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특정 최고 지도자의 장기집권이 대의제 틀 안에서 진행되는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체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장기집권하고 있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 집권기를 들 수 있다. 이 시기 러시아 체제는 2008년부터 2012년 푸틴이 총리를 맡았던 시기까지를 포함해서 사실상 그가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의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촉발될 정도이다.

29) 한편 상술한 두 유형은 전자는 불안정한 권위주의 그리고 후자는 안정된 권위주의로 각각 부를 수 있다.³⁰⁾

27) 이 시기 중국 정치의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Liberthal, K., *Governing China: From Revolution Through Reform*,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3, pp.234-256을 참조 바람.

28) 이 같은 카자흐스탄 정치의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박상운, “카자흐스탄 의회 엘리트 유형 변화: 카자흐스탄 제1대~8대 하원 분석”, 『국제학논총』, 제39권, 계명대 국제학연구소, 2024, pp.95-130을 참조 바람.

29) 이 같은 이 시기 러시아 정치의 보다 상세한 사항은 연담린, “푸틴 집권기 러시아 의회엘리트의 권위주의화 연구”, 『슬라브 학보』, 제39권 3호,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학회, 2024, pp.177-222를 참조 바람.

30) 이 ‘권위주의’의 개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Linz and Stepan, op. cit., pp.38-39을 참조 바람.

‘W-H-R-H’형. 이 체제는 낮은 권력 집중도와 높은 다원화 수준 그리고 대의제를 기층으로 하는 제도화와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또 높은 통합 정도와 넓은 분화 정도 그리고 넓은 순환의 범위와 점진적인 순환의 방식을 그 특징을 하는 엘리트 유형(S-W-W-G)과 대응된다. 대표적으로 1990년 이후 독일 연방 공화국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체제는 정부 형태의 차원에서 의원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등의 차원에서 체제의 다원화 수준을 제고하는데 매우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³¹⁾

한편 이 유형과 유사하나, 안정성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분명히 구별되는 ‘W-H-R-L’형이 있다. 즉 낮은 권력 집중도, 높은 다원화 수준, 대의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이다. 또 이 체제는 낮은 통합수준과 넓은 분화의 정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좁은 순환의 범위와 급진적 순환의 방식을 그 특징으로 하는 엘리트 유형(W-W-N-S)과 대응된다. 대표적으로 전 사회적인 민주화 시위를 통해 정치적 이행을 하였으나, 군부에 의해 복수로 헌정이 중단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1997년 이후 대략 2019년 총선 이전까지의 태국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입헌군주제 국가인 태국은 1997년 이후 2006년과 2014년 두 차례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특히 2019년 이후에는 그 체제 유형의 특징이 불안정한 방향으로 질적으로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²⁾ 이 상술한 두 유형은 전자는 안정된 민주주의, 후자는 불안정한 민주주의로 명명할 수 있다.

‘W-H-U-H’형. 이 유형은 권력의 집중도는 낮고 다원화의 정도는 높으며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면서 안정성은 높은 특성을 가진 체제이다. 대부분 분리주의 경향이 강한 전통 체제에서 출발한 이 체제 유형에는 통합 정도는 약하고 분화 정도는 높으며, 순환의 범위는 좁고 그 방식은 점진적인 엘리트 유형(W-W-N-G)이 대응된다. 대표적인 실재형의 예는 아랍에미리트를 들 수 있다. 이 국가는 걸프 지역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6개의 토후국(emirate)이 1971년 연합하여 건국하고 1972년 1개의 토후국이 더 가담하여 구성됐다. 초기 태생부터 그러했기에 국가의 통치는 이 7개 토후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행정부는 이들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7인 과두제로 볼 수도 있다. 대의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연방 평의회라는 기구는 입법기관이라기보다 심의기관에 가깝다. 그러나 체제의 안정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³³⁾

31) 이 체제의 특성과 관련된 최신 논의는 정병기, “대안당의 등장과 독일 정당 체제의 이념 구도 변화”, 『유럽연구』, 제41권 2호, 한국유럽학회, 2023, pp.1-25를 참조 바람.

32) 이 시기 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서경교, 고영준, “태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위기 상황: 대중 인식을 통한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제30권 4호, 한국동남아학회, 2020, pp.293-333을 참조 바람.

‘W-H-U’형. 이 체제는 상술한 유형과 안정성 측면에서만 구별될 수 있다. 즉 권력 집중도는 낮고 다원성은 매우 높으나 대의제는 채택하지 않고, 특히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특성을 가진 체제이다. 이 체제와 대응되는 엘리트는 통합 정도는 약하고, 분화의 정도는 높으며, 순환의 범위는 넓으며 그 방식이 급진적인 특징을 가진 유형(W-W-W-S)이다. 대표적인 예로 아프리카의 대국인 나이지리아의 1963년부터 1999년까지의 시기를 들 수 있다. 식민지의 유산을 안고 250여개 민족으로 구성된 이 국가는 대의제를 채택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그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했고, 지역과 민족별로 극단적인 대립과 분리 경향이 항시적으로 표출되었다. 또 이 시기 6차례의 쿠데타와 1번의 내전을 치루는 등 극도의 불안정 상태를 겪었다.³⁴⁾

‘W-L-R-H’형. 권력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다원화 정도 역시 낮으며, 대의제로 운용되거나 안정성을 높은 유형이다. 이와 대응되는 엘리트는 통합 정도는 낮고, 그 분화 수준은 좁으며, 순환의 범위는 좁고 그 방식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유형(W-N-N-G)이다. 소수의 정치 집단이 주로 의원내각제 형태의 대의제 시스템 하에서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예로 2009년에서 2012년 시기를 제외하고 1955년 이래 장기적인 자민당 일당우위를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을 들 수 있다. 특히 입헌군주제이자 의원내각제인 일본 정치에서의 정당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벌 정치의 특징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요인으로 이합집산하는 집권당 내의 파벌이 사실상 정당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³⁵⁾

‘W-L-R-L’형. 이 유형은 상술한 것과 다른 차원은 유사하나, 그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이다. 여기에는 통합 정도는 약하고 분화의 수준은 좁으며 순환의 범위는 넓고 그 방식은 점진적인 엘리트 유형(W-N-W-G)이 대응된다. 대표적인 예로 2010년 아랍의 봄의 시발점이 된 튀니지의 단기간의 상황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 이원집정부제와 다당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2022년 독재로의 회귀가 현상화 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두 번의 대선과 세 번의 총선이 진행되면서 2018년 사상 첫 여성 시장이 당선되는 등 상당한 급진적인 정치 역학의 변화가 발생했으나, 제도권 내 정치 세력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지 않아서 매우 빈

33) 이 국가 정치의 보다 상세한 사항은 오주연, 김은비, “아랍에미리트 중추 국가전략”, 『중동문제연구』, 제 21권 3호, 한국외대 중동문제연구소, 2022, pp.1-27을 참조바람.

34) 이 국가 정치의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정재욱, “서아프리카 해적문제의 지속 원인에 대한 연구: 나이지리아의 정치, 사회, 경제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6권 3호,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22, pp.35-62를 참조 바람.

35) 이 국가 정치의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박철희, “아베 시대의 대전환: 자민당 지배 공고화를 통해 탈진후하는 일본”, 『일본비평』, 제13권 제2호, 일본연구소, 2021, pp.180-205를 참조 바람.

번한 대중 시위 등의 폭력을 동반한 정치 요구의 분출이 잦았다. 2021년 결국 아랍 민주화의 모범국가에서 쿠데타로 인해 헌정 질서가 중단된 국가로 전락했다.³⁶⁾

‘W-L-U-H’형. 권력 집중도는 약하고, 다원화 정도도 낮으며 비대의적인 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안정성은 높은 체제 유형이다. 권력 집중도가 약하면서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일견 상호 모순된 상황의 조합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지속 기간은 그리 오래지 않으며, 대부분 극심한 혼란 혹은 전쟁 이후에 다른 체제로 전환하기 전에 상태에서 출현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통합 정도는 약하고 분화 정도는 높고, 순환의 폭은 좁고 그 방식은 급진적인 엘리트 유형(‘W-N-N-S’)이 대응된다. 대표적인 예는 2019년 30여 년간의 오마르 핫산 알 바시르(Omar Hassan Ahmad al-Bashir)의 장기 독재 체제를 마감시키는 데 큰 역할을 군부와 민간이 최고 주권회의를 구성하여 수단의 정치를 책임진 과도 정부 시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 상태가 이어지다가 결국 2023년 유력 군벌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사실상 이 체제는 붕괴하였다.³⁷⁾

‘W-L-U-L’형. 권력 집중도는 약하고, 다원화 정도 역시 낮으며 비대의제에 가까우며 안정성은 낮은 체제 유형이다. 여기에는 통합 정도는 약하고, 분화의 수준은 높고, 순환의 범위는 넓고 그 방식은 점진적인 특징을 가진 엘리트 유형(W-W-W-G)과 대응된다. 대표적인 예는 가장 강력한 정치 행위자집단인 군부에 의해 정국의 운영이 사실상 좌우되어왔고, 뿌리 깊은 민족 간 갈등과 배제가 존재하여, 대의제조차도 ‘유사(quasi)’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미얀마의 2011년에서 2021년 군부 쿠데타 직전까지의 상황을 들 수 있다. 즉 사실상 군부 통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한편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6) 이 시기 이 국가의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안소연,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위기: 튀니지 사례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21권 제1호, 중동문제연구소, 2022, pp.29-64를 참조바람.

37) 이 시기 이 국가의 정치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안소연, “다극화 세계 질서 변화 속 정치 혼란의 이종고: 수단 군벌 갈등을 통해 살펴본 다양한 외부 세력 개입과 국내 정치에의 영향”, 『중동문제연구』, 제21권 제1호, 중동문제연구소, 2024, pp.27-52를 참조바람.

38) 이 시기 이 국가의 정치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장준영, “군부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미얀마: 민간-군부 관계로 본 쿠데타의 역동성”, 『역사교육』, 제161권, 역사교육연구회, 2022, pp.29-63을 참조바람.

〈표 2〉 4차원적 정치 엘리트-체제 유형법과 실재형

엘리트 유형	체제 유형	실재형(체제)
S-W-N-G	S-H-R-H	1979년 혁명 이후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
S-W-W-S	S-H-R-L	1956년 이후의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S-W-N-S	S-H-U-H	1980년대 중화인민공화국
S-W-W-S	S-H-U-L	1976~1982년 시기의 중화인민공화국
S-N-W-G	S-L-R-H	2000년 이후 러시아 푸틴 집권기
W-N-W-S	S-L-R-L	2022년 이후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집권기
S-N-N-S	S-L-U-H	1965~1989년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집권기
S-N-W-S	S-L-U-L	1966~1976년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대혁명 시기
S-W-W-G	W-H-R-H	1990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
W-W-N-S	W-H-R-L	1997~2019년 태국
W-W-N-G	W-H-U-H	1972년 이후 아랍에미리트
W-W-W-S	W-H-U-L	1963~1999년 시기 나이지리아
W-N-N-G	W-L-R-H	1955년 이후, 2009~2012년 시기를 제외한 일본
W-N-W-G	W-L-R-L	2014~2022년 시기의 튀니지
W-N-N-S	W-L-U-H	2019~2023년 시기의 수단
W-W-W-G	W-L-U-L	2011~2021년 시기의 미얀마

참조: 엘리트 세부 유형은 통합 정도의 강(S)과 약(W), 분화 수준의 넓음(W)과 좁음(N), 순환 범위의 넓음(W)과 좁음(N), 순환 방식의 급진(S)과 점진(G)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이 각각의 범주들의 특성을 조합함. 또 체제 세부유형은 권력 집중도의 강(S)과 약(W), 다원화 정도의 고(H)와 저(L), 제도화의 대의제(R)와 비대의제(U), 안정성의 고(H)와 저(L)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이 각각의 범주들의 특성을 조합함.

IV. 결론

본 연구는 매우 많은 수의 변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 변이의 수보다 작은 수의 개념적 틀 즉 이념형을 설정하여, 이 소수의 이념형에다가 다수의 실재형을 대응시키는 유형법의 방법을 채택하여 전 세계 국가의 정치 엘리트와 체제의 변이에 대한 분석의 질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MBTI(Myers-Briggs 유형지표)’를 활용하여 전 세계 인간들의 성격을 유형화 및 분류하는 과정과 방법적론 궤를 같이 한다.³⁹⁾ 또 사회과학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행위자-구조-정책’으로 연

결되는 분석 모델 정립의 과정 중 하나의 단계로 기획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 영역에서의 대표 행위자인 정치 엘리트에 대한 최신 분류법인 4차원적 유형학에 대응되는 정치 체제 유형법을 설계하고, 이를 엘리트 유형법과 접합시킴과 동시에 대표 사례인 실재형을 대응시킴으로써 일정한 검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유형법의 여러 한계들을, 지수화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고차원으로의 개선을 통해 극복하려하는 시도이다. 즉 유형법이라는 방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복잡다단화의 추세를 반영하는 유형법의 고안 및 설계라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의미이다.

연구 결과, 우선, 다음과 같이 4차원적 정치 체제 유형법을 설계했다. 기존 연구들에 비판적 검토를 통해 정치의 본질과 관련하여, 권력 집중성과 다원화를 4개 차원의 범주로 설정했다. 또 제도의 특성과 작동과 관련하여 제도화와 안정성 등을 범주로 구분했다. 이렇게 4가지 차원에서 범주를 설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표 1>과 같이 총 16개의 세부 유형을 가진 정치 체제 유형법이 고안되었다. 이것이 바로 ‘권력 집중성, 다원화, 제도화, 안정성에 따른 4차원적 정치체제 유형법’이다. 다음으로, 이 체제 유형법과 엘리트 유형법과의 접합을 진행했다. 즉 <표 2>와 같이, 모든 16개의 정치 체제 유형은 친화성에 기반하여 각각 특정한 16개의 정치 엘리트 유형과 대응 관계를 맺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작업의 일정 수준의 적실성 검증을 위해 이 16개의 정치 엘리트-체제 세부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대응시켰다. 즉 <표 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총 16개의 대표적인 실재형의 사례가 대응되었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와 한계 그리고 이에 기반한 향후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존하는 것들 중 가장 고차원인 4차원적 정치 체제 유형법은 최신 시기 전 세계 국가의 체제의 특징과 그 변화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의 토대를 마련해준다. 주지하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뤄진 체제 유형에 대한 연구는 현재 시기 국가들의 변이를 설명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본문에서 소개한 이른바 혼합체제의 확산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결과이다. 그러나 이 4차원적 정치 체제 유형법은 기존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 등 개념 중심적 접근과 달리, 독자적으로 현존하는 정치 체제에 대해 가장 세분화된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즉 16개 세부 유형으로 전 세계 약 200여개 국가의 체제를 구분함으로써 기존 보다 더욱 세분화된 유형화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39) 이 유형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이지영, 박상혁, 윤상필, “MBTI가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사업정보학회 논문지』, 제20권 3호, 디지털산업정보학회, 2024, pp.117-121를 참조바람.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차원의 적절성, 각 차원의 측정의 현실성과 엄밀성 그리고 이념형과 대응관계를 맺고 있는 상정된 실재형의 대표성 등에 대해서는 논쟁의 지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실재형의 대표성은 향후 더 많은 통시 및 공시적 비교 연구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차원의 적절성과 각 차원에 대한 측정의 문제는 기실 '오류의 발견과 이에 대한 교정' 과정에서 한층 더 정교화되어야 한다. 한편 권력 집중성, 다원화, 제도화, 안정성 등의 차원으로 전세계 국가의 정치 체제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만큼 각각에 대한 개념적 엄밀성과 서로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기한 가장 큰 문제의식은 4차원이라는 다차원적 범주를 통한 보다 세분화된 체제 유형의 특징 파악과 이를 통한 분류라는 점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로 인해 일정하게 확인된 행위자-구조간의 상호작용의 논리뿐만 아니라 경험적 친화성은 보다 심화된 방식의 행위자와 구조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의 기초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상술했듯이 행위자의 선차성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재차 강조하지만, 이 두 요소 중 행위자가 더욱 중요하다거나 더욱 규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보다 심층적인 문제의식은 '상호작용'이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개념을 실제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시켜보겠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친화성과 선차성이라는 개념으로 이 두 요인간의 관계를 가정하고 진행되었다. 그 결과 특히 선차성은 방법론적 실용주의의 측면에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친화성은 가장 낮은 단계의 개연성에 불과한 것이니, 향후 구체적인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엘리트와 체제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 과정을 통해 엘리트-체제간의 관계는 친화성을 넘어서 상관성과 더 나아가 인과성으로까지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이론과 경험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각각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특히 향후 경험 내지 사례 연구의 심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이 과정은 실제 사례에 대한 적용을 통시·공시 비교 분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통해 그 적실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구 전략으로써 우선 공시 비교 분석을 통해, 16개 유형에 대한 실재형을 1차적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유형의 실재형에 대한 통시 비교분석을 진행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겠다.

셋째, 연구 방법으로써의 유형학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일정한 검증을 통해, 사회 현상의 과학적 탐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사회 현상의 복잡다단화 추세는 갈수록 그 폭과 속도가 넓어지고 빨라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같은 추세 하에서 어떻게 이 사회 현상을 탐구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는 그 접근

중의 하나로 유형학의 유용성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이 4차원적 체제 유형법의 한계에 대한 보완과 역으로 경험적 차원에서 현실 분석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 중국적으로 ‘국가’ 중심 체제인 현 세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수준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기호화된 4차원적 유형법의 세부 유형에 대한 개념화 작업 즉 ‘이름 정하기’는 독자적인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 전체 유형법의 이해력과 분석력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연구에서 주요 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우영, 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1권 3호,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18.
- 박상운, “카자흐스탄 의회 엘리트 유형 변화: 카자흐스탄 제1대~8대 하원 분석”, 『국제학논총』, 제39권, 계명대 국제학연구소, 2024.
- 박철희, “아베 시대의 대전환: 자민당 지배 공고화를 통해 탈전후하는 일본”, 『일본비평』, 제13권 제2호, 일본연구소, 2021.
- 서경교, “정치변동과 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Ⅱ: 논의와 평가”,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2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18.
- _____, 고영준, “태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위기상황: 대중 인식을 통한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제30권 4호, 한국동남아학회, 2020
- 안소연,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위기: 튀니지 사례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21권 제1호, 중동문제연구소, 2022.
- _____, “다극화 세계 질서 변화 속 정치 혼란의 이중고: 수단 군벌 갈등을 통해 살펴본 다양한 외부 세력 개입과 국내 정치에의 영향”, 『중동문제연구』, 제21권 제1호, 중동문제연구소, 2024.
- 오주연, 김은비, “아랍에미리트 중추 국가전략”, 『중동문제연구』, 제21권 3호, 한국외대 중동문제연구소, 2022, pp.1-27.
- 연담린, “푸틴 집권기 러시아 의회엘리트의 권위주의화 연구”, 『슬라브 학보』, 제39권 3호,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학회, 2024.
- 유달승, “이란 정치체제와 권력투쟁: 이란 정치 지형의 향방은?”, 『다양성+Asia』, 제1권 3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18.
- 이기홍, “행위, 행위주체 그리고 구조”, 『한국사회학』, 제28집, 한국사회학회, 1994.
- 이지영, 박상혁, 윤상필, “MBTI가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사업정보학회 논문지』, 제20권 3호, 디지털산업정보학회, 2024.
- 인남식, “2020년 이란 총선의 결과 및 함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3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 장준영, “군부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미얀마: 민간-군부 관계로 본 쿠데타의 역동성”, 『역사교육』, 제161

- 권, 역사교육연구회, 2022, pp.29-63.
- 정병기, “대한당의 등장과 독일 정당 체제의 이념 구도 변화”, 『유럽연구』, 제41권 2호, 한국유럽학회, 2023.
- 정재욱, “서아프리카 해적문제의 지속 원인에 대한 연구: 나이지리아의 정치, 사회, 경제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6권 3호,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22.
- 주장환, “정치 엘리트에 대한 4차원적 유형학: 논리와 사례”, 『대한정치학회보』, 제31집 3호, 대한정치학회, 2023a.
- _____,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국지역연구』, 제31집 3호, 중국지역학회, 2023b.
- _____, “경제 정책 변화와 엘리트 변동: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를 사례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
- Best, H. and Higley, J., eds., *Political Elites in the Transatlantic Crisis*, London: Palgrave, 2014.
- Carothers, T. 2002.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vol. 13, no. 1(2002).
- Dahl, R. A., *Poli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1.
- Diamond, L. 2002. “Thinking about Hybrid Regimes,” *Journal of Democracy*, vol.13, no. 2 (2002).
- Dogan. M. and Higley, J. eds., *Elites, Crises, and the Origins of Regimes*, Lanham: Ro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8.
- Higley, J. and Lengyel, G. eds., *Elites after State Socialism: Theories and Analysis*, Lanham, Boulder, New Y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 _____. and Burton, M. “The Study of Political Elite Transforma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vol. 11, no. 2(2001).
- Hoffmann-Lange, U. “Theory-Based Typologies of Political Elites,” in Best. H. and Higley, J.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Political Elites*, London: Macmillan Publisher Ltd., 2018.
- Howard, M. and Roessler, P., “Liberalizing Electoral Outcomes in Competitive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no. 2(2006).
- Korosenyi, A. “Political Elites and Democracy,” in Best. H. and Higley, J.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Political Elites*, London: Macmillan Publisher Ltd., 2018.
- Liberthal, K., *Governing China: From Revolution Through Reform*,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3.
- Linz, J. J. and Stepan, A.,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Shih, V., *Coalitions of the Weak: Elite Politics in China from Mao’s Stratagem to the Rise of Xi*,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 Putnam, R. D.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Elite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76.

- Ruostetsaari, I. "Social Upheaval and Transformation of Elite Structures: The Case of Finland," *Political Studies*, vol. 54, no. 1(2006).
- Ruostetsaari, I. "Opening the Inner Circle of Power Circulation among the Finnish Elites in the Context of Major Societal Changes 1991~2011," *Comparative Sociology*, vol. 12, no. 2(2013).
- Winters, J. A., *Oligarc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Abstract 】

Four Dimensional Typology of Political Elite-Regime
: Correspondence between Ideal Types and Examples

Joo, Jang-Hwan

How can we classify the political elites and regimes of some 20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is paper is one scholarly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paper attempts to solve this problem by proposing a four-dimensional typology of political elite-regime. More specifically, it proceeds in three steps. First,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existing studies, a typology of political regimes with 16 subtypes is designed and presented as a combination of four independent dimensions: concentration of power, diversification, institutionalization, and stability. Next, this typology is combined with the existing four-dimensional typology of political elites. Specifically, each of the 16 types is matched based on affinity. Finally, representative cases of each subtype of this four-dimensional typology of elites and regimes are provided to consistently verify its validity.

Chapter 2 explains the approach and core logic of this typology design and presents a four-dimensional regime typology. Chapter 3 corresponds this to the four-dimensional elite typology and introduces representative cases of each type. In the conclusion, I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derive implications, and formalize future tasks based on its limi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considered as a starting point for the debate in the relevant field by presenting a conceptual tool that can attempt to explain various realistic variations of political elites and regimes around the world through this new four-dimensional typology.

Key Words : Political Elites, Political Regimes, Four Dimensional Typology of Political Elite-Regime, Concentration of Power, Diversification, Institutionalization, Stability

• 논문투고일 : 2024년 10월 26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4년 11월 18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11월 21일